



서구, 설 명절 부패행위 근절 청렴캠페인 서구는 17일 오전 출근길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한 명절분위기 확산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하고 깨끗한 서구 구현을 위한 청렴캠페인을 전개했다. /서구 제공

광산구, 구직단념·자립준비청년 지원

고용노동부 사업 선정 11억4500만 원 사업비 확보

광산구는 고용노동부 주관 '2023년 청년도전 지원사업'에 공모 선정돼 청년의 노동시장 참여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구직단념청년, 아동복지 시설에서 보호받고 최소한 자립준비청년 등의 구직활동을 돕는 사업이다.

광산구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사업비 11억4500만 원을 확보, 청년 200명을 발굴해 사회활동 참여의욕을 높이는 밑작상단, 자신감 회복, 진로 탐색, 취업역량강화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프로그래밍을 이수한 청년에게는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50만 원)를 지급한다. 광산구는 사업 종료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과 연계해 실질적인 취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앞서 광산구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12월30일 국민취업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다수의 사업수행 경험을 가진 ㈜내일엔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이동기 기자

순천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힘찬 출발

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어르신 등 1300여 명 참석



순천시는 순천시니어클럽 주관으로 지난 16일 순천문화예술회관에서 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을 갖고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을 활기차게 시작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노관규 순천시장을 비롯한 노인일자리 참여자 어르신 등 1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일자리 참여 어르신을 대상으로 생

활안전·소양·활동교육 등 참여자 필수교육을 병행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발대식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최고의 복지는 좋은 일자리라는 생각으로 올해는 작년보다 예산을 9억 원, 일자리는 280명을 추가로 확보했으며 더 많은 어르신들이 더 다양한 분야에서 인생 2막, 3막을 펼쳐 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시니어클럽은 올해 공익활동 9개 사업 1274명, 시장형 9개 사업 115명, 사회서비스형 4개 사업 230명, 취업알선형 1개 사업 50명으로 총 1669명의 어르신에게 다양하고 알찬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순천시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대비해 박람회와 연관된 다양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순천=조순익 기자

2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신호등' 도입

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3개월 계도기간

사고 다발 교차로 등에서는 신호를 받아야 우회전이 가능하도록 한 우회전 신호등이 전국에서 본격 도입된다.

경찰청은 교차로에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고, 적색 신호 시 정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선 신호등의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이 가능하

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선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서울·부산·인천·대전·울산·경기·강원 등 전국 8개 시·도 15곳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해 시범운영한 바 있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 전에는 차량 신호 적색 시 첫 번째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준수율이 평균 16.5%에 불과했지만, 설치 후에는 우회전 신호 준수

율이 82.8%로 높아져 효과가 확인됐다.

새 시행규칙에 따르면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는 곳은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 상충이 빈번한 경우 ▲동일 장소에서 1년간 3건 이상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각선 횡단보도가 운영되는 곳이나 좌측에서 접근하는 차량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이다.

다만 경찰청은 우회전 신호등 설치에 따라 차량 정체가 발생할 수 있다

는 점을 감안해 우회전 전용차로 여부, 신호운영 등 종합적 검토를 통해 설치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우회전 신호등 운영 후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신호 위반 등에 대한 단속 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신호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나,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적색 신호 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뉴스

광주·전남여성단체 "비정규직 보육 대체교사 일자리 보장을"

'보육 대체 교사 고용보장' 광주시 농성 닷새째

'광주 보육 대체 교사 고용보장' 농성 닷새째인 17일 광주·전남 여성단체가 광주시를 향해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일자리 보장을 촉구했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단체들은 이날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앞에서 '보육대체 교사 고용보장' 기자회견을 열고 "안정적인 비정규직 교사들의 돌봄 노동 대책을 마련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여성단체는 "보육 대체 교사들은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도 보육의 질을 높인다는 자긍심으로 일하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광역시 경력 단절 여

성 등의 경제 축진에 관한 조례'는 '광주 시장은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 활동 축진을 위한 종합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명시했다"며 "광주시 누리집엔 '광주는 보육과 돌봄에 주력하겠다'는 홍보 문구가 적혀있다"고 밝혔다.

또 "광주시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경력 단절 여성을 양산하면서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어떻게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지원과 고용을 요구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여성단체는 "광주 시장은 보육 대체 교사들의 고용을 보장하고, 돌봄

노동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광주시 사회서비스원 노조 소속 보육 대체 교사들은 해고 철회를 촉구하며 광주시청 1층에서 5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을 근거로 올해 상반기 계약(2년이 끝나는 대체교사 62명의 고용 기간을 사회서비스원 수탁 기관 운영 종료 시점인 오는 2024년 상반기로 변경해 달라고 광주시에 요구했다.

광주시는 해고가 아닌 '계약 만료'이며, 원칙대로 향후 채용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일상 기자

북구, 설 연휴 결식 우려 아동급식 지원

북구는 설 명절 연휴 기간 중 결식 우려 아동 급식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북구 지역 저소득 세대, 한부모 가정 등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 4989명이다.

연휴 전 결식 우려 아동들의 아동급식 카드 충전을 지원하고, 아동급식 가맹점 4952곳의 위치·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가맹점 이용이 어려워 도시락 배달을 희망하는 결식 우려 아동들에게는 약밥, 쌀차장면 등 대체식품을 연휴에 앞서 배달·제공한다.

'올해의 책 추천해주세요' 동구, 오는 30일까지

동구는 2023년 책 읽는 동구 '올해의 책' 후보 도서 추천 설문조사를 오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올해의 책' 사업은 책으로 소통하며 개인과 공동체 삶의 질을 높이는 인문도시 동구의 사회적 독서운동으로, 유아, 어린이, 청소년, 일반 등 부문별로 총 10권을 선정해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한다.

설문 참여는 동구 누리집과 모바일 앱 '두드림' 또는 이메일(hjwang2018@korea.kr) 접수도 가능하며, 함께 읽고 싶은 도서명과 추천이유를 작성하면 된다.

/박종배 기자

도교육청 '학교공간혁신사업'에 83억원 지원

초중고 등 21개교에 1억5천만원~8억원 지원

전남도교육청이 학생과 교사가 학교공간을 직접 설계하는 '학교공간혁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2023년도 학교공간혁신 사업 참여 학교를 초 11개교·중 6개교·고 2개교·특수 2개교 등 21개교로 선정하고 예산 83억원을 투입한다고 17일 밝혔다.

학교 별로는 1억5000만원에서 8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학교공간혁신 사업은 학생과 교사가 학교의 모든 공간을 맞춤형으로 설계해 특색있게 조성하는 방식이다.

배움공간인 교실과 도서관은 온·오프라인 수업을 비롯해 융·복합 수업이 가능하도록 스마트기기 등을 구축할 수 있다.

또 다른 교실과 소통의 공간이었던 복도도 개선이 가능하다. 학교 특색에 맞게 신발장 자리에 의자를 설치해 학생들이 오가며 쉴 수 있도록 꾸밀 수 있으며 벽에는 대형 창문을 설치해 외부 경치를 볼 수 있도록 카페 처럼 구성할 수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교실에만 있는 각종 놀이교구들을 복도 등 다양한 공

간에 설치해 학생들이 언제나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

이 밖에도 학교공간혁신 사업을 통해 학교에 창의공간, 생태공간, 마을연계공간, 교육지원 공간 등을 조성할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는 학생과 교사가 가장 오랫동안 머무는 공간이지만 교실과 복도, 도서관, 급식실 등 딱딱한 구조였다"며 "학교공간혁신 사업의 핵심은 학생과 교사가 스스로 학교공간을 새롭게 바꾸는 것이다. 학생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이 넘치는 공간, 교사와 학생 모두가 행복한 공간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광고문의 : 062-363-8800

신문광고 매체 모든 것

호남매일에 맡겨주십시오

전화 한통화로 광고효과를 확인하세요



공고광고	대리점모집 및 사원모집광고, 사무실 이전광고, 결산공고, 분실광고, 정부 및 관공서 광고 등
준공고광고	영업(PR)광고와 공고광고가 혼합된 광고
부동산광고	부동산 관련광고와 분양 영업광고 일반적 상품광고, 기업PR 광고, 세일광고 등
정치 및 긴급성 광고	성명서, 호소문, 해명서 등 긴급을 요하는 광고와 정치단체(정당)에서 하는 정치광고
안내광고	구인, 구직, 부동산 임대나 매입, 중고품 판매, 결혼상담 등 각종 생활정보 광고

광고접수 : 062-363-8800 FAX:062-362-0078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 이메일:honamnews@hanmail.net